

##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박 승배 집사

구역장님,

나그네처럼 스쳐가는 저희 가족이 주님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따뜻한 신앙의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들만 하면 떠나는 사람들에게 정을 주기란 쉽지 않지요.... 중앙4구역식구들과 보스톤 한인교회에 늘 감사하며 이 곳에서 나름대로 영적 재충전을 하며 기쁨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뉴햄프셔로 잠시 단풍 구경을 갔을 때 깨달은 것이 있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단풍을 그냥 찍히기가 아까워 땅에 떨어진 노란 단풍잎을 하나 주웠습니다. 주운 잎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잎 한쪽이 벌레가 갉아먹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색해 기대와는 달리 별로 아름답지 않았습니 다. 그 잎을 버리고 다른 잎을 주웠습니다. 나름대로 고르고 골랐으므로 이 잎은 아주 아름다울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잎의 색깔 역시 어딘가 아쉬웠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아름다운 단풍의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눈 부신 노란색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낙엽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손 높이 정도에 위치한 단풍잎 하나를 나무에서 신중하게 골라 땀습니 다. 그런데 내 손에 들린 이 단풍잎의 일부분도 역시 완벽한 노란색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저런 아쉬움과 흠이 있었습니다. 단풍잎을 손에 든채 아직 나무에 붙어 있는 여러 단풍잎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 손에 들린 것보다 상태가 더 좋은 것이 있는지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저는 흠이 없는 완벽한 단풍잎을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하나의 전체로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이건만 하나 하나를 뜯어보면 모두 어딘가에 흠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단풍잎이 모여서 완벽한 단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모자라는 단풍잎이 모여서 서로의 장점을 드러내주고 부족한 점을 가려주면서 하나의 전체로서 아름다운 단풍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흠이 있는 단풍잎이 모여서 뉴잉글랜드의 유명한 단풍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집단도 이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족한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장점을 드러내주고, 단점을 감싸줄 때 아름다운 교회, 하나의 전체로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 성격상 죄인의 집단, 즉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지 성인의 집단은 아니라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의 연장선에서,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대해 가졌던 감정,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할까?’ ‘어느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감동적이라는데 왜 우리교회 목사님은 교인을 줄게 만드는 것일까?’ ‘어느 장로와 집사는 그 직분에 맞는 품격이 결여된 사람 아닐까?’ 등과 같은 감정을 가졌던 것이 아주 잘못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흠있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어느 완벽한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그 교회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서로를 받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고 사이 좋게 지내는 교회를 만들 책임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오늘 이 시간, 화요일 저녁 9시 30분, 저희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날 올란드 여행에 필요한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콘도를 하나 어렵사리 구했습니다. 24일 밤은 95번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어느 모텔에서 지낼 예정이고, 25일 저녁에 올란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31일 올란도를 떠나 뉴욕에서 하룻밤 정도 묵은뒤 1월 3일 낮에 보스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행을 계획하다 보니 성탄전야와 성탄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31일을 교회가 아닌 여행지와 고속도로 주변 모텔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아쉽습니다...

## 주가 하시리라

차 민호 교우

새 학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2009년 겨울 수련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신 윤대혁 목사님께서 감사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2007년 가을 수련회 때 오셔서, 성령의 말씀, 찬양 인도, 그리고 개개인을 위한 기도로 수련회를 뜨겁게 달구셨던(?) 목사님이셨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주가 하시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주가 만나주시리라”, “주가 구원하시리라”, “주가 승리케 하시리라 1, 2” 그리고 “주가 책임져 주시리라” 라는 멈추지 않는 5번의 말씀 집회를 가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역사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곳까지, 그리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던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윤대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매일 매일을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잡는 그물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변화되어 나오는 청년 1부를 기대하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Youth Group Lock-in

김 성연 집사

지난 1월 18일 Ransom Youth Group에서는 겨울 일일수련회 (Lock-in)를 가졌습니다.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인해 예배가 2시로 연기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약 20명의 학생과 9명의 선생님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서로 친목을 다지고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 예배후 영화관람으로 수련회 순서를 시작하였고, 이어 PTA에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저녁식사를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이 Youth Group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서로 다른 가운데서도 주님 아래 우리는 같은 형제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눈이 더 온다는 일기예보에 아쉽게도 교회에서 밤을 지새는 시간은 못 가지고, 10시에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식사후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여러 학생들이 주님을 접하는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성경공부 시간에 공부했던 마태복음을 주제로 Jeopardy퀴즈 게임을 하였고, 김영순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부침개 거리를 가지고 어떤 팀이 가장 맛있는 부침개를 만드는가 하는 cooking contest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리는 눈으로 집에 가는데 고생하셨지만, 모든 행사를 무사히 치르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월 25일에는 교육주간을 맞아 중고등부 예배 대신 본당에서 2부 어른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예배시간에는 중고등부와 이를 위해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항상 말없이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어 소 그룹으로 나뉘어져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로 sharing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 온 많은

## 마리아 여선교회 소식



1. 지난 12월 14일에는 ECC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음식 바자를 주관하였습니다. “엄마의 손 맛”이라는 이름의 장 터에 걸맞게 저희가 손수 만든 김밥, 녹두빈대떡, 호박나물, 무말랭이무침, 자장 소스 등 과 뉴욕에서 주문배달 해 온 각종 마른 음식물 들로 여러분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로인해 순수입 약 \$3,500을 건축기금으로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교우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2월 15일(일) 오전 10시 30분에 금년도 새 임원 인준 및 예산책정, 행사계획 등을 위한 임시 총회가 있습니다.

3. 2월 28일 (토) 동북부 한인여선교회 주최 “가교회 여선교회 새임원을 위한 수련회”가 NJ에서 있습니다. 이 수련회에서는 PCUSA의 총괄적인 조직 구조로 부터 세밀한 부서 구성 및 하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해석이 있었습니다. 참석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김한나 집사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3월 6일(금) 오후 8시에 본교회 본당에서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도일은 PCUSA의 여선교회 주최로 매년 3월 첫 금요일에 모입니다. 제3나라의 어려운 형편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여선교회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청년 2부 소식

류 정용 교우

샬롬~ 그루터기 청년2부 입니다.

지난 해 12월과 올해 1월 청년2부의 굵직한 행사로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와 신년모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엔 청년들이 예배 후에 함께 모여 선물도 교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축하하는 의미있는 자리를 가졌구요,

1월1일 신년모임때는 이영길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사모님이 해 주신 맛있는 떡국도 먹고 윗놀이도 즐기는 값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풍성한 음식을 대접해 주신 이성혜 사모님과 박강희 사모님, 그리고 윤경문 목사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것은 이영길 목사님의 윗놀이 실력이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일명 ‘뺨도’로 상대방의 말을 잡아내는, 그야말로 상대방에겐 공포에 가까

운 실력을 유감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청년부에서는 그 이야기가 ‘뺨도신공’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교인 여러분께 기도제목을 하나 내놓을까 합니다. 우리 청년2부 담당교역자이신 허신영 목사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방문 중입니다. 3주의 방문 기간동안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달 후에 다시 한울타리를 통해 소식 전할 때까지 교인 여러분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니카라과 선교지에서 온 소식>

## 세상의 부서짐을 고치는 우리들

전 구 선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17-19)

커네티컷에서 사는 친구가 이런 글이 담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왔다. “너와 너의 가족은 진실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보여주면서 살고 있구나. 이처럼 부서져 버린 세상을 고치기 위해 너희 가족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2009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나에게서 이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찾아 주는 말이라고 믿는다. 세상의 부서짐을 고치는 우리들……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넘어진 것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찢어진 곳을 수선하는 우리들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나? 부서진 이 세상을 싸매기 위하여서 말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33년을 이 세상에 사시면서 부서진 것을 어떻게 고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다. 주님은 상처 투성인 과부들과 고아를 사랑으로 품으셨고, 전쟁과 싸움으로 파괴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보여 주셨고, 영과 몸이 질병으로 무너진 자들을 치유해 주셨으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해 주셨고, 배고파 허물어져 가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이 모든 무너짐이 죄로 연유하기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이 부서져 있음을 아신 분이 다. 그리고 그 부서짐을 고쳐 주셨고, 고침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일을 맡아서 계속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다. 로마서 15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적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의 부서짐을 고쳐야 한다’ 는 이 말이 나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가지고 왔다. 우리 가족은 니카라과의 부서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곳으로 부름 받은 자들 중에 하나이다. 많은 면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곳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고귀한 부르심의 목적을 잊고 살 때가 많다. 부서진 모습들이 이 곳 저 곳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무감각해진 다. 그리고 그 부서진 것들을 고치고 싸매기에 때론 힘들게 느껴지는 때도 많다.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않는다. 그렇기에 부서진 것을 보고 느끼는 것과 부서진 것을 찾은 후에 싸매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두 가지의 다른 일이다. 고치는 일에는 기도와 담대함, 그리고 계획하는 것과 재정적 헌신 등등이 따라야 한다. 때문 이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저 그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기도 한다. 간직하고 싶지 않은 추억처럼 잊어 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부서짐과, 다른 사람들의 부서짐을 고쳐 나가는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 드린다. 우리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복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한다면, 이 세상의 부서짐이 다 고쳐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때가 성큼 다가오리라. (<http://www.matthewjun.blogspot.com/>)



# 모금위원회 소식

안 태준 장로



축 완공의 희망찬 2009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적던 많던 우리의 건축에 보태어지는 힘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도 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모자라는 현금 보유액 때문에 당회와 모금위원회에서는 긴급 모금을 실시하여 14만 5천 여불의 현금과 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현금보유액을 조금은 안정된 상태로 끌어 올릴 수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같은 경제 상태에서 이만한 현금이 나올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제 얼마남지않은 성전 완공을 위하여 조금만 더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이 건축을 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하염없이 지는 꽃잎이 아닌 생명의 먼류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금액
총 모금 목표액	\$ 800,000
납입 현금액	\$488,868
약정 잔액	\$157,800
3차 총 모금액	\$646,668
추가 모금 잔액	\$ 153,332

지난 1월24일 (토요일) 모금위원회 주최로 조유미 집사님의 독창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독창회에서 조유미 집사님은 평소 성가곡으로 익숙해진 우리들 에게 Handel, Strauss, Schubert, Bellini 등의 서양 가곡과 Verdi 의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 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음악회를 찾아 주셨으며 탁월한 성량에서 우리 나오는 아름다운 노래들로 인해 음악회는 감동의 “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래가 끝나고도 떠날지 모르는 많은 분들께 앵콜 곡으로 조유미 집사님은 모두가 좋아하실 곡이라며 동심초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렇게 건축기금 모금의 일환으로 개최된 음악회로 인하여 외부로는 3개 신문사들을 통하여 진행되어 지는 우리의 성전건축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안으로는 모여진 수익금으로 모자라는 건축기금에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

# 집사회 소식

김 준구 집사

1. 집사회에서는 모금위원회와 공동으로 ECC 건축기금 모금을 위한 만두 바자를 12월 28일과 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여 총 \$1,505의 건축현금을 드렸습니다. 신경과 구정 설날을 앞두고 전통적인 설날 음식인 만두 판매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최씨네 만두도 홍보하고, 건축현금도 모금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씨네 만두 사장님과 가족들은 아침 일찍부터 오

셔서 직접 만두 튀기는 일을 도와 주셨으며, 교인여러분들의 성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나마 처리할 수 있으셨다며 거듭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2-3개월에 한번씩은 만두 바자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건축기금 이외에도 불우이웃 돕기 및 선교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만두바자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신 교인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집사회 임시총회를 교회 친교실에서 2월2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새로 임직받으신 23명의 서리 집사님들을 환영하고, 집사회 임원소개 및 13개 부서의 사업계획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교회 규칙에 따라 서리집사님과 휴무집사님 중 1명을 집사회를 대표하여 공천위원으로 선임하고, 교회 재정 감사를 맡으실 분도 1명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또 집사회 회칙 개정 위원회를 만들어 집사회 회칙 개정(안)을 차기 집사회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안건을 다

루려고 합니다. 저녁식사는 집사회에서 준비할 예정이니,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은 편히 오셔서 새로 임직받으신 신임 서리집사님들을 환영해 주시고, 집사회의 일년 살림을 논의하는데 기여해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집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집사회나 제직회에 참여하시기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이번 집사회부터는 참석 못하신 집사님들께 모임 내용 및 의결사항을 정리하여 우편으로 보내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꼭 참석하여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 신년 기도

노 윤경 집사

여기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 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2009년도 신년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2009년도에도 우리 교회 각 부서의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상록회원 장로님 권사님들께 건강을 허락하셔서 그 분들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희망인 선플라워 유년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유스 그룹 학생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튼튼한 신앙의 뿌리를 키워 나가길 기도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성장하여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더불어 귀한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청년부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큰 힘을 주셔서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제직회에 속하여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힘을 더하셔서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ECC 건축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 드립니다. 주님, 그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일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힘을 주셔서, 쉽지 않은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올해는 ECC 건축이 마무리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초대하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도 주님을 알리는 귀한 기회로 활용하게 하시옵소서. 여 선교회에 몸 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 교우님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몸담고 섬기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영육의 건강을 허락 하시옵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고통을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고난 속에서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시간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2009년에는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가 제 2의 희년을 향한 비전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3대가 함께 배우고, 기도하고 주님께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면서 세계를 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정의의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을 주님께 더욱 더 헌신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로 다 함께 땀땀 뭉쳐 열심히 일하는 2009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바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